

개성공단 경협보험금 이르면 이번주 지급

의견접수 마무리…기업철수 현실화 우려

정부가 금명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경협보험금 지급을 최종 결정한 뒤 이르면 이 번주부터 보험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어서 정부의 중대조치 현실화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는 경협보험금 지급 결정에 앞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주협) 위원们 18명을 대상으로 한 의견접수를 6일 중완묘할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6일 “오늘은 (최종 지급 결정이)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의견접수 가 마무리되면 내일부터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700억원에 달하는 경협보험금 지급 결정

은 이미 정부가 북한에 경고한 첫 중대조치 가 될 전망이다.

북한은 개성공단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최후통첩상 마지막 회담 제의에 9일째 아무런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경협보험금 지급은 이번 사태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보전해 주는 의미와 함께 사실상 기업들이 공단에서 철수한다는 합의가 있다.

정부의 다른 당국자는 “보험금 지급이 실제로 시작된다면 그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서 “이번주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내부 조치로는 보험금 지급이 중요하

기 때문에 그것을 잘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협보험을 받는 기업은 정부에 공단 내 자신에 대한 소유권을 넘기고 정부가 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대위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개성공단 폐쇄 수순으로 가는 실질적인 절차라는 분석이다.

일단 정부는 여전히 북한의 책임있는 변화를 촉구하면서 조금 더 기다려 본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인내심에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표현까지 쓴 정부가 무작정 손을 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는 점에서 경협보험금 지급을 신호탄으로 다른 중대조치를 잇따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중대조치로는 단전, 단수 조치 등이 거론된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지금 그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도 “단전은 하나의 수순으로 볼 수도 있으며 어느 순간에 가면 자연스럽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 날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이 결렬 위기에 빠진 것은 남측이 대화의 지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서는 재발방지 부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면서 “북한이 조속히 회담제의에 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

‘DJ 4주기 추도식’ 18일 현충원서 엄수

12일~18일 추모기간

김대중평화센터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4주기 추도식을 오는 18일 오전 10시 동작동 국립현충원 현충관에서 추도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추도식은 추도사, 김 전 대통령의 육상 영상 상영, 추모 노래, 유족 대표 인사, 종교의식 순서로 진행되며, 추도식 후에는 김 전 대통령의 묘소로 이동해 현화와 참배가 이뤄진다.

‘김대중 대통령 서거 4주기 추모위원회’

(위원장 김석수 전 국무총리)는 4주기 행사 주제를 ‘평화·희망 그리고 김대중’으로 하고, 8월 12일~18일을 추모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에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에는 분향소가 설치되고 김 전 대통령의 집무실이 일반인에게 개방된다. 17일에는 이곳에서 ‘청년 김대중과 한국 현대사를 주제로 한 추도 토크쇼가 열린다.

추모위원회는 국민의 정부 및 참여정부 주요인사, 정당 대표, 종교계 대표, 경제단체장, 국회의원, 재야인사 등 595명으로 구성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지방정부

“수영대회 세부자료 공개를”



조호권, 시장방문 민생 행보



광주시의회 서정성(민주·남구2)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공개된 자료 가운데 타당성 조사 자료의 경우 국비가 55억 원, 시비가 330억원, 기금이 250억원 등 총 635억으로 되어 있지만, 광주시가 FINA(국제수영연맹)에 제출한 자료에는 선수촌 조성 등을 포함하면 총 사업비 규모가 1조원에 달했다”며 세계수영 선수권 유치 관련 자료들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어 “사업비 중 국비가 약 280억원이었으며, 수영진흥센터 1000억, 선수단 항공료도 약 54억원으로 책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조호권은 이 자리에서 “지속하는 경기침체와 무더위로 전통시장 고객들의 발길이 끊기고, 고온다습한 날씨 탓에 상품이 쉽게 변질하는 등 상인들이 많은 손해를 보고 있어 안타깝다”며 “광주시의회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대형유통업체 지역 진출을 막고, 소상인과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일본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활주로 이탈과 관련, 특별감사를 하기 위해 6일 오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日니가타 공항서

KAL기 활주로 이탈

5일 오후 7시41분께 일본 니가타(新潟) 공항에서 대한항공 763편 보잉 737 여객기가 착륙 도중 활주로를 이탈(오버런, overrun)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승객 106명과 승무원 9명 중 부상자는 없었다고 대한항공이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6일부터 3주 일정으로 대한항공의 정비·운항분야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대한항공 정비와 운항 분야, 교육훈련 등에 문제가 없는지 전반적으로 조사해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한승원 칼럼

한반도 평화지역의 상징적인 공간인 개성공단을 되살리자는 회답이 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을까. 1차 회답을 한 다음 왜 남한 대표는 교체되었을까.

여당은 왜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댓글 사건을 밝히자는 국가정보원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일까. 각계각층의 많은 뜻있는 사람들이 왜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에 대하여 심판하라고 생명을 내고 있을까. 그들은 음지에서 일하는 요원들이 그 모든 것을 양지에서 드러내고, 여전히 정보정치를 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일까.

30년 전, 이 땅의 모든 신문사 편집국이나 방송국에는 음지에서 일하는 요원이 배치되어 “이 기사는 내보내지 마시오. 이것은 크기를 줄이고 막으로 내리시오. 저 기사는 2면으로 넘겨십시오”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일까.

그들은 대통령의 비위를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여당 종친 국회의원들을 남산

시절에 국가정보원으로 불리면서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 있다.

모든 대통령은 그들에게 특단의 권력을 부여한다. 그들은 외교 관례상 세상에 드러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금비밀을 거칠없이 드러내놓고, 드러내도 괜찮은 것은 감추고 있다.

지난 대통령선거 때, 여당 대선 캠프에서는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NLL에 관한 노무현과 김정일의 정상회담 기록을 입수하여 활용했고, 때가 되면 깨하겠다고 공언했다. 결국 국정원장이 그 비밀등급을 해제하고, 국회에 제출 공개하여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

그런데 국정원 요원들이 대선 당시에 벌인 댓글 사건은 국정조사에서 공개할 수 있음에도 여당이 비공개로 하자고 우겼고, 힘이 달린 민주당은 ‘받은 공개하고 반은 비공개로 하자’는 쪽으로 물러섰다.

의석수가 과반을 웃센 넘는 여당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모든 것을 다 바

음지와 양지가 바뀐 국정원

으로 끌고 가서 수염을 뽑아버리는 모욕을 주었다.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든 중앙정보부가 그랬다고 들었다.

내 고향 장흥에도 그 지부가 있었고, 요원들은 법원과 검찰지청과 경찰서와 군정 때마다 출입하면서 행정을 간섭하고, 상주하는 주민들 가운데 프락치를 두어 정보를 수집하여 상부로 보고하고 했었다.

독재권력이 시퍼렇던 그 시절, 그들의 수장인 이후락은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은밀하게 북한 김일성을 만나고, 7·4 남북공동성명을 터뜨렸다.

음지 요원들은 서울 남산에 집을 지어 놓고 독재에 항거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북한의 지시에 따르는 집단으로 만들고, 적당한 때에 간첩단 사건이라고 터뜨리곤 했다. 산으로 끌고 가서 죽이고, 추락사한 것으로 꾸미기도 했다.

그들이 양지를 지향하는 것도, 자유와 진리를 만들어간다는 것도 허울 뿐이었다. 그들은 몸 전체를 보이지 않게 하는 마력을 가졌고, 설사 눈에 띄더라도 일반 사람들은 보지 못한 척해야 했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국가 안전기획부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집단이다.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음지의 요원들이다. 여당이 하는 모든 일은 그들과 교감을 통해 벌이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한다.

파란 국면을 맞은 국정원 국정조사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그 칼날이 국정원과 정부·여당을 겨냥할 것일진 데 지금 까지 해왔던 그들의 흔들기는 끝까지 이어질 게 분명하다. 수확을 기대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5일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증인으로 밝힌 발언만 하더라도 가관이 아닐 수 없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NLL(북방한계선)을 포기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히면 서로 댓글을 통한 대선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한 걸 보면서 섭섭함을 지울 수 없다.

NLL 문제는 자신의 판단을 하고, 검찰에서 혐의를 인정한 국정원 사건마저 부인한다는 게 당혹한 일인가. 그렇다면 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그가 증인으로 출석했는가. 권력과 조직을 위한 그들의 퇴행적 행태가 민주주의를 삭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유감이다.

〈소설가〉

금당공인중개사

매매,교환,개발등의 물건을 접수합니다.

감정가 이하물건

- 담양군 월산면 공장 대지 4882㎡(1477) 건평 150평 대출 2억 법인이전형. 2억 7천만원
- 계류동 구 호텔건물 대지 542㎡(164) 건평 3968㎡(1200) 목욕탕·찜질방·객실38개 등과 유동시설 등 18억
- 북구 유동 상업지역 대지 411㎡(124) 건평 327㎡(99) 공시지가 2억 8200평 매도 2억 9천
- 금남로 4가 대로변 대지 317㎡(97) 건물 1235㎡(363) 건물 2동 공시지가 14억 5천 매도 16억 5천
- 월산동 목욕탕·룸, 투룸, 대지 508㎡(153) 건평 741평 병원·요양시설 등 적합 16억 5천
- 대인동 동부수도방수서부근 대로변 대지 694㎡(210) 건물 158평 광주은행본점 부근 공시지가에 매도 11억 6천
- 북구 도로변 대지 624㎡(189) 건물 421평. 병원·사무동 적합 유행 12억 매도 13억 5천
- 신안동 한방병원 대지 645㎡(195) 건평 372평 감정 16억 5천선 대출 11억 매도 13억
- 신창동 대지 301평 건평 715평 회사사옥·병원노인시설 등 적합. 은행17억 보증금 4억 3천 월 1650만원선 매도 35억

투자·나대지

- 동구 수기동 705㎡(213) 원룸, 투룸, 쓰리룸. 83개 허가 주택기금 12억 각종협의가능 매도 8억
- 담양군 대덕면 고속도로접 관리지역 2587평 공장·창고 등 적합 대출 1억 6천 매도 2억 3천
- 험평군 월야면 13024평 전원주택개발적합 6억 8천
- 두암동 2층주거지 47평 대출 5천 매도 6천
- 광주와 담양을 사이 4차선 국도접 2111평 주유소·가스충전소 허가점 대출 10억 매도 12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금남로 5가 광주고용센터 옆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와우선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상가 주택

- ▷동구 충정로5가 중심상업 7층상가사무실 대지579㎡ 건평2929㎡ 감정가43억 최저가24억
- ▷광산구 유품동 2층주점 3층상가주택 대지221㎡ 건평 440㎡ 감정가5억 최저가3억5천만
- ▷광산구 신기동 3층상가주택 대지429㎡ 건평561㎡ 감정가6억9천만 최저가4억8천만

단독 주택

- ▷서구 화정동 2층주거2층주택 대지159㎡ 건평184㎡ 감정가1억3천만 최저가9천만
- ▷서구 화정동 2층단독주택 대지154㎡ 건평196㎡ 감정가1억6천만 최저가1억2천만
- ▷광산구 송정동 2층주거단독주택 대지252㎡ 건평131㎡ 감정가1억3천만 최저가1억2천만

공장 및 창고

- ▷광산구 지죽동 준공업지역2층공장 토지1914㎡ 건물 1379㎡ 감정가15억 최저가8천만
- ▷광산구 용동 일보공업 2층공장 토지3305㎡ 건물2711㎡ 감정가30억 최저가21억
- ▷담양군 창평면 단층창고, 사무실 토지3279㎡ 건물 1560㎡ 감정가4억7천 최저가3억2천만
- ▷무안군 해제면 떡식리 관리지역 전·임야 3642㎡ 매매3,500만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동원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전문)

상가건물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 (7층) 보5억4천월3500만 매46억원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3층) 보3억원, 월1200만원 매24억원
- 상무지구 중심상업